

다니엘 3:17의 통사 구조와 번역

김유기*

1. 서론

다니엘서는 이야기(1-6장)와 환상(7-12장)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부분에는 각 장별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이야기 여섯 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장에는 궁정 안에서 벌어지는 대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¹⁾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신하들의 고발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예식을 거행하면서 전국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다. 그 예식 가운데 금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서가 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경고한다. 그렇지만 지방 관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점성술사들이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잡아 오게 한다.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kim@swu.ac.kr.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025-0032).

1) W. L. Humphreys,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9는 단 4, 5장의 이야기를 “궁정 경쟁 이야기(tales of court contest)”로 분류하고 단 3, 6장의 이야기를 “궁정 갈등 이야기(tales of court conflict)”로 분류한다. 궁정 경쟁 이야기에서는 궁정 관리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실패할 때 한 명의 영웅이 성공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데에 반해 궁정 갈등 이야기에서는 궁정 관리들의 갈등 구조 가운데서 한 분파가 다른 분파를 파괴하려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왕은 이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왕은 그들이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이 사실인지 묻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진다.

(1) 다니엘 3:14-15 (『개역개정』)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 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자 세 사람이 대답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은 3장 전체에서 여기에만 인용되어 나온다.

(2) 다니엘 3:16-18 (『개역개정』)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에 관해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번역의 바탕에는 원문의 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깔려 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조건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번역자들과 학자들의 다양한 본문 이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2장에서 다니엘 3:17의 아람어 원문이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피고, 3장에서 현대 번역본들이 이 문장의 통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번역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 구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고 일부 학자들의 새로운 의견도 들여다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이 구절의 앞뒤에 나오는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 구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음, 6장에서는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며 글을 맺을 것이다.

2. 아람어 원문과 고대 번역본

아람어 원문에서 다니엘 3:17은 아래의 (3)으로 나온다.

(3) 다니엘 3:17 (MT)

דָנִיָּאֵל אֱלֹהֵינוּ דִי־אֲנָחָנוּ פָלָחָנוּ יְכַל לְשִׁזְבֹּתָנוּ
מִן־אָתָנוּ נֹרָא יְקַרְתָּא וּמִן־יְדָךְ מֶלֶכָא יְשִׁיבָ:

고대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이 구절을 아래의 (4)로 옮긴다.

(4) 다니엘 3:17 (LXX)

Ἐστιν γὰρ θεὸς ἐν οὐρανοῖς εἷς κύριος ἡμῶν ὅν φοβούμεθα ὃς ἔστι δυνατὸς
ἐξελέσθαι ἡμᾶς ἐκ τῆς καμίνου τοῦ πυρός καὶ ἐκ τῶν χειρῶν σου βασιλεὺ^ε
ἐξελεῖται ἡμᾶς

칠십인역의 한국어 번역: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임금님, 임금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칠십인역은 이 구절을 “그리고(*καί*)”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절로 나누어 옮긴다. 그러나 (2)에서 인용한 『개역개정』이 이 구절을 조건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조건문으로 옮긴 것과 달리, 칠십인역은 바로 앞 16절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진술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옮긴다.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도 이 구절을 조건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5) 다니엘 3:17 (VUL)

ecce enim Deus noster quem colimus potest eripere nos de camino ignis
ardentis et de manibus tuis rex liberare

불가타의 한국어 번역: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임금님, 임금님의 손에서 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5)에서 볼 수 있듯이 불가타는 이 구절을, 대등하게 이어진 두 개의 부정사를 하나의 조동사가 지배하는 문장으로 옮긴다. 아람어 **בִּזְבַּח**의 부정사형과 미완료형을 둘 다 라틴어의 부정사로 옮기면서 “potest”의 지배를 받게 한 것이다. 아람어 **בִּזְבַּח**의 부정사형과 미완료형은 문맥에 맞추어 각각 “eripere”와 “liberare”로 다르게 옮긴다.

칠십인역과 불가타 모두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원문의 조건절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원문의 조건문이 지니는 신학적 함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했을 것이다. 이 번역들은 조건절로 번역할 경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구원하실 수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고(“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면”)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는 고대 번역본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 번역본들도 이 구절을 다양한 방식으로 옮기고 있으며 학자들도 이 구절의 구조와 의미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3. 현대 번역본의 조건절 번역

3.1. 조건절 배제

(6) 조건문으로 옮기지 않는 번역본들

LB Siehe, unser Gott, den wir verehren, kann uns erretten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auch aus deiner Hand, o König, kann er erretten.

EIN Siehe, unser Gott, dem wir dienen, er kann uns retten.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aus deiner Hand, König, wird er uns retten.

NEG Voic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de la fournaise ardente, et il nous délivrera de ta main, ô roi.

Reina-Valera(1960) He aquí nuestro Dios a quien servimos puede librarnos del horno de fuego ardiendo; y de tu mano, oh rey, nos librará.

최근 개정된 독일어 번역본 LB와 EIN은 『나』를 “Siehe(보세요!)”로 옮긴다.²⁾ 프랑스어 번역본 NEG 역시 청자의 주의를 끄는 “Voici”로 옮기며 스페인어 번역본 Reina-Valera(1960) 역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He aquí”로 옮긴다. 이 번역본들은 아람어 『나』를,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칠십인역과 불가타의 전통을 어느 정도 잇는 번역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번역본들은 이 구절에 조건절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면서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옮김으로써 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표현을 피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BB와 Reina-Valera(1995)는 마치 『나』이 없는 것처럼 옮긴다.³⁾

3.2. 불타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지는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

(7) 첫 두 단어를 조건절로 옮기는 번역본들

『개역한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아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표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아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아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ESV⁴⁾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TNK for if so it must be,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save us from your power, O king.

EIN(1980) Wenn überhaupt jemand, so kann nur unser Gott, den wir verehren, uns erretten; auch aus dem glühenden Feuerofen und

2)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Lutherbibel(1984)과 Einheitsübersetzung(1980)은 둘 다 『나』를 조건절을 이끄는 “Wenn(만약)”으로 옮기고 있다.

3) BB: “Unser Gott, den wir verehren, kann uns aus dem brennenden Ofen retten …”; Reina-Valera(1995): “Nuestro Dios, a quien servimos, puede librarnos del horno de fuego ardiente”.

4) KJV, RSV, NAS, NKJ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옮긴다.

aus deiner Hand, König, kann er uns retten.

이 번역본들은 **הַנְּאֵתִי**를 조건절로 보면서, 15절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위협하면서 말한, 불타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지는 일을 **אֵתִי**의 생략된 주어로 본다. **הַנְּאֵתִי**를 『개역한글』은 “만일 그럴 것이면”으로, 『표준』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으로, 『새번역』은 좀 더 명시적으로, “불 속에 던져져도”로 옮긴다. English Standard Version(2011) 역시 “If this be so”로 옮기며, TNK 역시 “if so it must be”로 17절을 시작한다. 이와 달리 Einheitsübersetzung(1980)은 **הַנְּאֵתִי**를 완결된 조건절로 보면서도 **אֵתִי**의 주어를 정해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Wenn überhaupt jemand”로 번역한다.

3.3.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조건절

(8)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조건절로 옮기는 번역본(『개역개정』)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개역개정』은 **הָאֵתִי** 이끄는 조건절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조건절로 옮겨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한다. 로젠탈(F. Rosenthal)은 **אֵתִי**는 변하지 않는 형태로 쓰이면 ‘존재’를 표현하는데 대명접미사가 결합되면 계사(繫辭, copula)를 대신한다고 한다.⁵⁾ 이를 바탕으로 하트먼과 디 렐라(L. F. Hartman and A. A. Di Lella)는 다니엘 3:17의 **אֵתִי**에 대명접미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에 명사구가 온 다음 분사가 오기 때문에 **אֵתִי**를 계사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⁶⁾

아람어 **אֵתִי**는 히브리어 **שׁוּב**과 같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존재사(存在詞)로 이해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골дин게이(J. E. Goldingay)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15절에서 이미 제기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⁷⁾ 한편 LB(1984)는 “Wenn unser Gott, den wir verehren, will”이라고 옮겨서 **אֵתִי**가 주어의 존재가 아니라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는

5)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PLO 5 (Wiesbaden: Harrassowitz, 1974), 41 (§ 95).
 ‘계사(繫辭, copula)’는 영어의 ‘be’ 동사처럼 필수적으로 보어를 지배하는 서술어를 가리킨다.

6) L. F. Hartman and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AYB 23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58.

7) J. E. Goldingay, *Daniel*, N. L. deClaisse-Walford, ed., rev. ed., WBC 30 (Grand Rapids: Zondervan, 2019), 226.

데,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찾기 어렵다.

3.4.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하는 조건절

이 분석에 따르면 **אֱלֹהִים**과 **אֱלֹהִים** **לְשִׁיבוֹתָנוּ**가 함께 조건절의 서술어가 되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면”이라는 뜻이 된다. 명사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אֱלֹהִים**과 그 명사구 뒤에 있는 분사 **יָכַל**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약 … 할 수 있다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אֱלֹהִים**은 존재사가 아니라 계사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주어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있는 명사구 **פֶּלְחִין**(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다.

부정사 **לֹא** 다음에는 **מֵן**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둘이 접속사 **ו**로 이어져 있는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부정사의 지배를 받고 어느 것이 미완료 **יִשְׁיבָּ**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조건절과 주절의 경계는 아래의 ⑦, ⑧, ⑨ 가운데 한 곳으로 볼 수 있다.

(9) 다니엘 3:17 조건문에서 주절과 조건절의 경계

דָּן אֱלֹהִים דְּרַאֲנָהָנוּ יָכַל לְשִׁיבוֹתָנוּ
מֵנָאתָנוּ נָורָא יִקְרָתָא ⑧ וּמְנוּידָךְ מְלָכָא ⑨ יִשְׁיבָּ:

3.4.1. 부정사가 전치사구를 지배하지 않음

(10) (9 ⑦) 앞을 조건절로 보는 번역본들

『공동개정』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탄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한글』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내 주실 것입니다.

JPS⁸⁾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He will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out of thy hand, O king.

NRS 각주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he will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and out of your hand, O

8) ESV는 JPS와 거의 같은 번역을 각주에 대안으로 제시한다.

king.

- | | |
|-----|---|
| ZB | Wenn der Gott, dem wir dienen, uns retten kann, wird er uns aus dem lodernden Feuerofen und aus deiner Hand, König, retten. |
| TOB | S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qu'il nous délivre de la fournaise de feu ardent et de ta main, ô roi ! |

이 번역본들은 위의 (9 ㉠)을 기준으로 조건절과 주절이 나뉘는 것으로 본다. 『공동개정』은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으로,⁹⁾ 『새한글』은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 주실 수 있다면”으로 조건절을 옮긴다. NRS의 각주에서는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라는 대체 번역을 제시하는데 이번역은 JPS의 번역과 똑같다. 독일어 번역본인 ZB의 “Wenn der Gott, dem wir dienen, uns retten kann”이나 TOB의 “Si notre Dieu que nous servons peut nous délivrer” 역시 같은 분석 결과를 번역으로 보여 주고 있다.

3.4.2. 부정사가 첫 번째 전치사구를 지배함

(9 ㉡)을 기준으로 주절과 조건절이 나뉘는 것으로 보는 번역이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본 현대 번역본들 가운데 이러한 번역을 찾을 수 없었다.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진술은 같은 말을 조건절과 주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9 ㉡)을 기준으로 절을 구분하는 번역은 흔히 볼 수 있다. 두 개의 전치사구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부정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것을 미완료형 정동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칠십인역과 불가타도 그렇고 3.1과 3.2에서 예로 든 대다수의 현대 번역본도 이런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9)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각각 기존의 『개역한글』 및 『표준』과 다르게 옮긴 데에 반해 『공동개정』은 『공동』의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 번역에서 **מִן־דָּבָר** **אֲלֹתָה**를 어떻게 옮기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임금님께서 … 집어넣으셔도”로 돌려서 번역한 것 같다.

3.4.3. 부정사가 두 전치사구를 모두 지배함

(11) (9 ⓕ) 앞을 조건절로 보는 번역본들

JB if our God, the one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from your power, O king, he will save us;

NRS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and out of your hand, O king, let him deliver us.

JB와 NRS는 (9 ⓕ)을 기준으로 조건절과 주절이 나뉘는 것으로 본다. 접속사로 연결된 두 전치사구가 그 앞에 나오는 부정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몽고메리(J. A. Montgomery) 역시 조건절의 범위로 이처럼 보는 번역을 제안한다.¹⁰⁾ 한편 NRS에서는 주절의 동사 **בִּישׁוּב**를 미완료가 아닌 지시법(jussive)으로 분석하고 원문에 없는 목적어를 넣어서 번역한다.¹¹⁾

4. 낱말들의 기능과 조건문의 구조

4.1. **ןָהַר**

히브리어의 **ןָהַר**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감탄사로 기능하는 낱말이다. 그러나 아람어의 **ןָהַר**은 히브리어의 **מְאֹד**처럼 조건절을 이끌거나 간접의문문을 이끌 뿐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¹²⁾ 따라서 위의 3.1에서처럼 이 구절의 **ןָהַר**을 청자의 주의를 끄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³⁾ 다니엘서에는 **ןָהַר**이 아홉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3:17을 제외하고 여섯 번(2:5, 6, 9; 3:15하; 4:27[24]; 5:16)은 미완료 동사가 사용된

10)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h: Clark, 1927), 206: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iery burning furnace and from thy hand, O king, he will save (us); but if not, etc.”

11) 앞서 3.4.1에서 보았던 TOB 역시 **בִּישׁוּב**를 지시법으로 분석하여 프랑스어의 접속법으로 옮기고 있다.

12) HALOT, 1861; C. L. Seow, *Daniel*, P. D. Miller and D. L. Bartlett, ed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56; J. E. Goldingay, *Daniel*, 226.

13)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Hildesheim; New York: Georg Olms, 1969), 365 (§ 111b)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ןָהַר**을 “siehe”로 옮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절을 이끌고 있으며 1회(3:15상)는 분사가 사용된 절을 이끌고 있다. 나머지 한 번(3:18)은 부정어 **אַל**만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절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용례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1-6장)에만 나온다. 이 낱말이 다니엘서 이야기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הִנֵּה이 사용된 아홉 번 가운데 네 번(2:5, 9; 3:15하, 18)은 **אַל**가 포함된 부정 조건절이며 이 부정 조건절들은 궁정 조건절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2:5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점성술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 뜻을 함께 알려 주지 않으면(**אַל** **חָן**)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6절에서는 그 꿈과 그 뜻을 풀어 주면(**חָן**) 상을 내리겠다고 그들을 회유한다. 점성술사들이 그 꿈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9절에서 왕은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점성술사들이 자기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אַל** … **חָן**) 벌을 내리겠다고 다시 위협한다.

3:15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가 세운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날 때 형상에게 절한다면(**חָן**) 좋을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여기에서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없지만 문맥에서 주절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이어서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אַל** **חָן**)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5:16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자기에게 알려 줄 수 있다면(**חָן**) 명예와 지위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니엘이 길게 꿈풀이를 하는 단락(4:19-27[16-24])의 마지막인 4:27[24]에도 **חָן**이 이끄는 절이 나온다. 다니엘은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죄를 뉘우치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왕의 행복이 오래 지속되게 하려면(**חָן חָ הוּא אֲרֹכָה לְשָׁלוּחָת**) 그렇게 하라고 한다. 번역본들은 흔히 이 절을 조건절보다는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절로 옮긴다.¹⁴⁾ 웨설리어스(J. W. Wesselius)는 이 절을 조건절로 보면서 주절과 조건절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한다.¹⁵⁾ 그러나 3:15에 주절이 생략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절이 생략되었

14)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이 절을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로 옮긴다. 마찬가지로 『새번역』은 **חָן**을 “그렇게 하시면”으로, 『공동개정』은 “그리하면”으로, 『새한글』은 “그러면”으로 옮기고, LB도 “so wird es dir lange wohlergehen”처럼 결과를 나타내는 절로 옮긴다. ESV처럼 “that there may perhaps be a lengthening of your prosperity”처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옮기는 번역본도 있다. 물론 ZB처럼 “wenn dein Glück von Dauer sein soll”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15) J. W. Wesselius,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VT* 38 (1988), 207.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략된 주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죄를 뉘우치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다니엘서에 **חִנָּה**이 사용된 다른 곳과 달리 4:27[24]에서는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다. 그러다 보니 위협하는 부정 조건절이 없이 설득하는 긍정 조건절만 나온다.

4.2. **אִתָּה**

토리(C. C. Torrey)는 **אִתָּה**가 그 안에 조건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왕기하 10:15에 나오는 **שׁוֹיְשׁוֹ**와 똑같은 구조로 보면서, 이 표현을 “그것이 그러하다면(If it be so)”으로 번역하고 “만약 왕의 선고가 시행된다면”을 뜻한다고 설명한다.¹⁶⁾ 여기에 관해 바우어와 레안더(H. Bauer and P. Leander)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한다.¹⁷⁾ 그러나 17절의 **חִנָּה אִתָּה**에 관한 토리의 견해를 따른다면 18절의 **לֹא וַיְהִי**는 “만약 왕의 선고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않더라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실 **לֹא וַיְהִי**는 왕이 명령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아야 한다.¹⁸⁾ 또한 쿡(J. A. Cook)이 지적하듯이 **אִתָּה**가 명시적인 주어 없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성서 아람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¹⁹⁾ 따라서 위의 3.2와 같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

앞의 3.4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현대 번역본들은 다니엘 3:17에 나오는 [**אִתָּה** + 명사구 + 분사]를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 **אִתָּה**를 “있다”를 뜻하는 존재사가 아니라 분사와 함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옹-무라오카(P. Joüon and T. Muraoka)는 성서 히브리어의 [**שׁ**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이 조건절이나 의문절에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보거나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라고 한다.²⁰⁾ 무라오카(T. Muraoka)는 성서 아람어의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 역시 성서 히브리어의 [**שׁ** + 대명접미사 + 분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존재사인 **אִתָּה**가 대명접미사와 결

16) C. C. Torrey, “Notes on the Aramaic Part of Daniel”, *The Transactions of the Connecticut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5 (1909), 263.

17)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328-329 (§ 98h).

18) L. F. Hartman and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158.

19)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BBR* 28 (2018), 374.

20)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542. 여기에서 예로 제시되는 구절은 창 43:4; 신 13:4; 창 24:42; 삫 6:36이다.

합한 경우 어떤 진술이 참됨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²¹⁾ 그런데 그는 다니엘 3:17의 문법을 설명하면서, **אִתָּה** 다음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ךְ**가 원래 있었을 것인데 어쩌다가 떨어져 나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무라오카는 이곳의 **חַנָּה**이 “아마도 주절이 없는 조건절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²²⁾ 접속사 **־ךְ**가 원래 있었다는 무라오카의 제안은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다니엘 3:17의 [**אִתָּה** + 명사구 + 분사]를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와 같은 구조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 조건문에 주절이 없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אִתָּה** + 명사구 + 분사]는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 구조에서 대명접미사를 명사구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서 아람어에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는 몇 차례 나오지만 [**אִתָּה** + 명사구 + 분사]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캉슨(P. W. Coxon)은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에 나오는 [**אִתָּה**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을 설명하면서 **אִתָּה**가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니엘 3:17의 [**אִתָּה** + 명사구 + 분사] 구문에서도 **אִתָּה**가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אִתָּה**와 분사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주어를 도드라지게 한다고 본다.²³⁾ 로젠탈도 **אִתָּה**에 대명접미사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이미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²⁴⁾ 그렇지만 왜 같은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만 명사구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서만 **אִתָּה**가 명사구를 뛰어넘어 분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리(T. Li)는 다니엘 3:17의 이 구문이 **אִתָּה**에 분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²⁵⁾ 그와 달리 골дин게이는 “계사와 분사를 분리하는 것은 성서 아람어에서는 유례가 없다”라고 한다.²⁶⁾ 성서 아람어의 자료 분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

21) T. Muraoka, *A Biblical Aramaic Reader: With an Outline Grammar* (Leuven; Paris; Bristol, CT: Peeters, 2015), 29.

22) Ibid., 47.

23) P. W. Coxon,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VT* 26 (1976), 407-408.

24)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41 (§ 95). 여기에서도 로젠탈이 말하는 ‘강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들과 달리, T. Li,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Leiden; Boston: Brill, 2009), 84는 [**חַנָּה**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이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가 가리키는 시제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현재 시제 표지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25) T. Li,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85.

26) J. E. Goldingay, *Daniel*, 226.

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도 이 구문에 상응하는 구문은 나오지 않는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שׁ + 대명접미사 + 분사] 구문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שׁ + 명사구 + 분사] 구문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שׁ + 명사구 +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절은 나온다(창 44:26; 샷 6:3). 그러나 이 구문은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존재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한다면 **תְּהִיאָ**와 분사로 이루어진 서술어의 주어는 **תְּהִיאָ**에 결합된 대명접미사여야 하며 주격(독립) 인칭대명사나 명사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17을 “… 우리 하나님이 … 하실 수 있다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위의 3.4.1-3.4.3과 같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3. **בְּיִשְׁבָּ**의 부정사와 미완료

בְּיִשְׁבָּ는 기원전 8세기나 그 이전에 신-아시리아 아카드어에서 빌려온 아람어 동사로서 직접목적어와 함께 나오며 선택적으로 **מֵן** 전치사구가 함께 오기도 한다.²⁷⁾ 성서 아람어에서 이 단어는 다니엘 3장과 7장에만 여덟 차례 나온다(3:15, 17[2회], 28; 6:17, 21, 28[2회]). 그 가운데 하나(6:28상)는 분사의 형태로서 수식어구나 목적어가 없지만 나머지 일곱 가운데 3:17하반에 나오는 미완료형 외에는 모두 직접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으며 **מֵן** 전치사구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3:17을 제외하고 세 번이다(3:15, 6:21, 28하).

다니엘서의 용례를 볼 때 3:17하반의 **בְּיִשְׁבָּ**가 직접목적어나 **מֵן** 전치사구와 관련 없이 홀로 쓰였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따라서 3:17하반의 **מֵן** 전치사구도 **בְּיִשְׁבָּ**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이 여덟 번의 용례 가운데 직접목적어 없이 **מֵן** 전치사구와 함께 쓰이는 곳은 3:17하반이 유일하다. 이 동사가 기본적으로 직접목적어를 지배하는 동사이므로 3:17하반에서 직접목적어가 암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암시된 직접목적어는 바로 앞 17상반절의 **בְּיִשְׁבָּ**의 하펠 부정사형에 결합된 대명접미사 **אָ-**(“우리를”)이다. 따라서 17절에 나오는 **בְּיִשְׁבָּ**의 부정사와 미완료는 각각 직접목적어와 **מֵן** 전치사구를 지배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3.4에 제시된, 조건절과 주절을 구분하는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는 3.4.1의 번역본들처럼,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מֵן** 전치사구가 모두 미완료형 동사 **בְּיִשְׁבָּ**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

27) E. Lipiński, “**בְּיִשְׁבָּ** šyzb”, H. Gzella,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6: Aramaic Dictionary*, M. E. Biddle,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8), 757-758.

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쿡 역시, 마소라 본문에서 하나의 절을 두 개의 큰 의미 단위로 나누는 부호인 ‘아트나흐’가 **לְשִׁוּבָהּ תְּנַאֲ**의 부정사인 **לְשִׁוּבָהּ**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מֵן**이 이끄는 두 개의 전치사구가 모두 뒤에 나오는 미완료형 동사 **לְשִׁוּבָ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⁸⁾

4.4. 17상반절과 16하반절의 연결

웨슬리어스는 다니엘 3:17상반을, 뒤따르는 17하반절의 조건절이 아니라 16하반절의 조건절로 이해하려 한다. 성서 아람어에서는 보통 조건절이 주절보다 앞에 오지만 문학적인 목적을 위해 가끔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웨슬리어스에 따르면, 15절에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겠느냐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 내신다면(3:17상) 자신들이 여기에 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3:16하) 한다.²⁹⁾ 웨슬리어스는 **מֵן**이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절이 이 조건절의 앞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쿡은 문법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상반절을 17하반절의 조건절로 이해하지 않고 16절의 문장에 안긴 절로 본다. 다시 말해, 17상반절을 16하반절의 **פְתַנְמָם לְהַחְבֹּתְךָ עַל־דָּנָה אֲנָהָנוּ נָבוֹכְדֶּנָּצָר**의 서술어의 목적절, 곧 간접의문문으로 이해하고, 17상반절의 **מֵן**을 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쿡에 따르면 세 사람이 16절부터 17상반절까지 한 말은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네부카드네자르, 우리는 이 점에 관해 임금님께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라면요.”³⁰⁾

쿡에 따르면 16절의 부정사 **לְהַחְבֹּתְךָ**의 직접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17절의 **מֵן**이 이끄는 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³¹⁾ 그러나 **לְהַחְבֹּתְךָ**의 직접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는 ‘말/대답’의 뜻을 지닌 **פְתַנְמָם**이다. **חַוָּב**의 하펠 부정사형에 대명접미사 **ך**가 결합되어 있는 **לְהַחְבֹּתְךָ**가 바로 앞의 명사구 **פְתַנְמָם**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목적절을 지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더 나아가, 웨슬리우스나 쿡의 제안은 다니엘 3:15,

28)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376.

29) J. W. Wesselius,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207-208.

30) J. A. Cook,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377.

31) Ibid., 373.

17-18의 “… לֹא חָן … וְהַנּוּ”의 구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의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5. 조건절의 범위

바우어와 레안더는 다니엘 3:17, 18의 비대칭 구조를 지적한다. “어떻든 **שִׁיזֵב לֹא חָן**(18절)는 17절(17절)과 평행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לֹא** 뒤에 **שִׁיזֵב** 가 보충되어야 한다.”³²⁾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 사람을 건져 낼 수 있으실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이 17절에 나온다면 18절에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실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이어야 하는데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7절에서 각각 **אֱתָיו**와 **יְכַל**과 첫 번째 **מִן**으로 시작하는 세 절 가운데 한두 절이 조건을 나타내고 나머지 절(들)이 그 결과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조건문은 맥락에 잘 맞지 않는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앞선 질문이나 세 사람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초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계셔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건져내실 것이라는 조건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조건절과 주절에 반복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 세 절을 모두 서로 이어진 조건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은 다니엘서 이야기에서 낯설지 않다. 앞서 4.1에서 살펴보았듯이, 3:15 역시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이며 4:27[24] 역시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17절은 구조적으로 아래의 (12)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2) 세 조건절로 이루어진 다니엘 3:17

חָן	접속사
אֱתָיו אֱלֹהֵינוּ דִּיאָנָתָנוּ פֶּלְחֵינוּ	조건절 1
יְכַל לְשִׁיזֵבֽוּתָנוּ	조건절 2
מִן־אָתָה נָרוֹא יְקֻדְתָּא וּמִזְרָךְ מִלְכָא יְשִׁיבָה:	조건절 3

17절 전체를 세 개의 조건절로 해석하면 18절과의 비대칭 문제도 사라진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32) H. Bauer and P. Leander,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365 (§ 111b).

건져내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여기서 “**וְהַנְּאָלֶה**(그렇지 않더라도)”는 17절의 가정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의 (13)에서 볼 수 있듯이, 15절의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이 “**אָלֶה וְהַנְּחַנְתִּי** … **וְהַנְּחַנְתִּי**”의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17-18절의 세 사람의 대답도 “**אָלֶה וְהַנְּחַנְתִּי**”의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다.

(13) 다니엘 3:15와 3:17-18의 구조

… חַנְתִּי	“…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엎드려 절한다면”(15절)
… אָלֶה חַנְתִּי	“바로 절하지 않는다면”(15절)
… חַנְתִּי	“… 계셔서, … 하실 수 있고, 건져내신다면”(17절)
… אָלֶה חַנְתִּי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18절)

17절 전체를 조건절로 본다면 위의 (13)에 나오는 네 조건문 가운데 15절과 17절의 긍정 조건문은 둘 다 주절 없이 조건절로만 이루어져 있고 15절과 18절의 부정 조건문은 둘 다 조건절과 주절을 갖추고 있다.

17절 전체를 조건절로 분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7절과 18절은 대화의 상대방인 네부카드네자르에 맞서 세 사람이 자신들의 결심을 표명하는 진술이다. 인용문 가운데 등장하는 호칭어의 사용이 이를 잘 보여 준다. 17절과 18절 모두 “임금님(**מֶלֶךְ**)”이라고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가 등장하다. 이 표현은 흔히 왕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앞서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대답하면서 “네부카드네자르(**נְבֹכְדָנֵצֶר**)”라고 대화 상대를 이름으로 부른다.³³⁾ 세 사람이 왕과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17-18절에 사용된 **מֶלֶךְ**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보다는 단순히 직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왕이 섬기는 신들과 세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33) BHS는 MT에서 **מֶלֶךְ נְבֹכְדָנֵצֶר**에 있는 아트나흐를 바로 뒤의 단어인 **נְבֹכְדָנֵצֶר**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읽으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말했다”로 되어 “네부카드네자르”가 인용문이 아니라 이야기 틀 안에 있게 된다. J. E. Goldingay, *Daniel*, 223은 MT의 표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 BHS의 제안을 따른다. C. L. Seow, *Daniel*, 55-56 역시 이렇게 고쳐 읽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원문대로 읽을 경우 이 호칭어에 험의된 무례함은 다니엘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MT를 따를 때 문맥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18절의 진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세 사람의 굳은 결심을 표현한다.³⁴⁾ 그들은 어떤 신이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16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건져 주신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에서 표현하면서(17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부카드네자르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드러낸다(18절).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네부카드네자르의 화를 돌웠을 것이다(19절).

6. 맷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3:17의 고대 및 현대 번역본들의 이해와 최근 연구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 구절의 통사 구조가 어떠한지 밝히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17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면서도 여기에 들어 있는 세 개의 절을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지 않고 이 세 절을 모두 조건절로 파악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주절이 생략된 조건문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분석할 경우, 조건절과 주절을 나눔으로써 생겨나는 의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을 시작하는 조건절 “אֶל יְהוָה”와 대칭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3:17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발언에 나오는 궁정 조건문에 주절이 없는 것은 3:15의 네부카드네자르의 발언에 나오는, 주절이 없는 궁정 조건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장치를 사용해서 저자는 왕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는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 3:17-18은 아래의 (14)처럼 읊길 수 있다.

(14) 다니엘 3:17-18의 번역

17 하나님의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불타는 아궁이에서, 그리고 임금님,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18 그렇지 하지 않으셔도, 임금님, 임금님은 아셔야 합니다.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34) P. W. Coxon,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408은 "여기에서 의심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한다.

<주제어>(Keywords)

다니엘 3:17, 조건절, 성서 아람어, 헨, 이타이.

Daniel 3:17, conditional clauses, Biblical Aramaic, *hēn*, *'ītay*.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3일)

<참고문헌>(References)

- Bauer, H. and Leander, P., *Grammatik des Biblisch-Aramäischen*, Hildesheim; New York: Georg Olms, 1969.
- Cook, J. A., “Grammar and Theology in Daniel 3:16-18”, *BBR* 28 (2018), 367-380.
- Coxon, P. W., “Daniel III 17: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Problem”, *VT* 26 (1976), 400-409.
- Goldingay, J. E., *Daniel*, N. L. deClaissé-Walford, ed., rev. ed., WBC 30, Grand Rapids: Zondervan, 2019.
- Hartman, L. F. and Di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on Chapters 1-9*, AYB 23,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umphreys, W. L.,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1–223.
- Joü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HALOT*)
- Li, T., *The Verbal System of the Aramaic of Daniel: An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Leiden; Boston: Brill, 2009.
- Lipiński, E., “בְּרִיאָשׁ šyzb”, H. Gzella,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6: Aramaic Dictionary*, M. E. Biddle, trans., Grand Rapids: Eerdmans, 2018, 757-759.
- Montgomery,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h: Clark, 1927.
- Muraoka, T., *A Biblical Aramaic Reader: With an Outline Grammar*, Leuven; Paris; Bristol: Peeters, 2015.
- Rosenthal, F.,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PLO 5, Wiesbaden: Harrassowitz, 1974.
- Seow, C. L., *Daniel*, P. D. Miller and D. L. Bartlett, ed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Torrey, C. C., “Notes on the Aramaic Part of Daniel”, *The Transactions of the Connecticut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5 (1909), 241-282.
- Wesselius, J. W.,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II-VI”, *VT* 38 (1988), 194-209.

<Abstract>

Syntactic Structure of Daniel 3:17 and Its Translation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Daniel 3:17 has been translated in various ways across both ancient and modern versions. The Greek Septuagint, the Latin Vulgate, and some modern translations do not render the verse as a conditional sentence, often interpreting the particle *hēn* as an interjection rather than as an indicator of a condition. Among modern translations that do treat the sentence as conditional, there is no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the protasis. Some translations limit it to the particle *hēn* and the first word '*ītay*' without an explicit subject, making the condition the act of being thrown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Others extend it to include the noun phrase "the God whom we serve," making the condition instead the existence of God. Still others incorporate the participle followed by an infinitive — "able to deliver us" — making the condition God's ability to save the speakers from their impending fate. To avoid the implication that the speakers question either God's existence or His power, some scholars link the protasis to the last sentence of the previous vers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unlike the Hebrew *hēn*, which often functions as an interjection, the Aramaic *hēn* introduces a protasis or an embedded question. Moreover, '*ītay*' cannot serve as a predicate without an explicit subject. Even if the following noun phrase is taken as the subject, the resulting conditional clause would not form a strong or balanced parallel with the following negative conditional clause in the next verse. Additionally, there is no attested case in Biblical Aramaic where '*ītay*' serves as a copular predicate linking a noun phrase to a following participle. Instead, '*ītay*' in this verse is better understood as an existential rather than a copular predicate, meaning that it denote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rather than linking the subject to its complement.

We propose that the conditional sentence in Daniel 3:17 consists of *hēn* followed by three conditional clauses without an apodosis, a construction that influences how the verse should be interpreted. This structure creates a deliberate parallel between the conditional clauses in verse 17a and in verse 18a,

reinforcing a contrast between different possibilities. By identifying this structural parallel,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passage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Our analysis also finds support in a conditional sentence with a missing apodosis in verse 15 and possibly in Daniel 4:27[24], demonstrating a recurring pattern in the Aramaic portions of Daniel.